

## 2023년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에 청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3년 세계청년대회는 포르투갈의 ‘리스본(Lisboa)’에서 열리게 됩니다. 알록달록한 색상의 동화 마을 같은 여유로운 분위기가 인상적인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 이 도시는 대지진을 견뎌 낸 구시가지와 새롭게 조성된 신시가지가 공존하는 도시로 유럽의 과거와 현대의 멋을 경험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곳입니다. 이 도시를 더욱 아기자기한 동화 마을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언덕 위 빼곡히 위치한 빨간 지붕들의 건물입니다. 도시가 높고 경사진 언덕으로 이루어진 만큼 리스본에는 다양한 전망대가 많은데 그곳에서 내려다보는 매혹적인 색상의 빨간 지붕들이 매우 장관입니다. 특히 대서양 바다와 인접해 있는 도시인 만큼 전망대에서는 빨간 지붕과 대비를 이루는 푸른 대서양 또한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세계청년대회 주제성구는 “마리아는 일어나 서둘러 길을 떠났다”(루카 1,39참조)입니다.



2023 리스본 세계청년대회 로고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십자가 - 인류애를 향한 하느님 사랑의 표지인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는 모든 것이 탄생하는 주된 요소입니다.
- 오솔길 - 성모님의 엘리사벳 방문은 2023년 리스본 세계청년대회의 주제로, 성모님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것, 그리고 친척 엘리사벳을 도와주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젊은이들에게 ‘내면의 힘, 꿈, 열의, 희망, 고마움’을 새롭게 하도록 초대합니다.
- 묵주 - 묵주를 선택한 것은 포르투갈 사람들이 파티마의 성모님께 대한 영성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묵주를 오솔길 위에 놓은 것은 포르투갈에서 특별한 순례의 경험을 떠올리게끔 해줄 것입니다.
- 성모마리아 - 성모님을 소녀로 묘사하여 루카 복음서의 내용(1,39)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의 그림은 아직 어머니가 아니지만, 세상의 빛을 품에 안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또한 성모님께서 보여주신 하느님을 향한 순명의 자세도 약간 담겨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고를 구성하는 3색(녹색, 적색, 노랑색)은 포르투갈 국기의 3색을 인용한 것입니다.

세계청년대회는 가톨릭교회가 조직하여 열리는 전 세계 젊은이들의 행사입니다. 이번 2023년 리스본 세계청년대회는 광주대교구 청년들이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성장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열정적이고 소중한 자리에 광주대교구 청년 여러분

[첨부1]

을 초대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른 교회와 만나면서 출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이며 2023년에 리스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 ▶ 일 정 : 2023년 7월 25일(화) ~ 8월 11일(금), 17박 18일 예상(※추후변동가능)  
[교구대회] 7월 26일(수) ~ 31일(월), 5박 6일  
(장소 : 레이리아-파티마교구, 에보라 대교구 중 1곳)  
[본 대 회] 8월 1일(화) ~ 6일(주일), 5박 6일  
(장소 : 리스본 총 대주교교구, 산타렘 교구, 세투발 교구 중 1곳)
- ▶ 참가자격 : 20세 ~ 35세 청년 중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청년  
※ 참가기준에 의하여 **40명** 선발 예정(학생회 포함 3년 이상 본당 활동)
- ▶ 예상비용 : 1인 550만원(※유류할증료, 환율에 따라 변경 가능성 있음)